https://doi.org/10.35419/kmlit.2022..76.009

일반논문

# 글 쓰는 청년 전태일*

송은영**

Ⅰ. 전태일의 부활과 그 후 50년
Ⅱ. 차용과 변용의 글쓰기
Ⅲ. 개인성과 보편성이 만나는 소설을 향하여
Ⅳ. 문학적 글쓰기의 경계를 재설정한 전태일의 글쓰기

## Ⅰ. 전태일의 부활과 그 후 50년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죽음 이후 새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살아 숨 쉬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된다. 전태일의 이름은 노동자들의 펜과 입에서 정치인을 치장하는 수사로, 노동문학과 수기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불온금지서적에서 교과서로 옮겨다니고 있다. 죽음을 통해 인간적 삶의 가치를 외친 자에게 주어진 사후(死後)의 영향력은 일종의 부활처럼 느껴진다. 전태일 자신이 마지막 4-5년 간 기독교에 귀의했고 묘비에는 '기독청년'이라고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512)
** 연세대 국학연구원.

www.kci.go.kr

“사회참여적인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전태일을 ‘순교자’, ‘젊은 예수의 제자’, ‘작은 예수’, ‘부활 예수’ 등으로 표상하는 경우”[1]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사후에 지속된 영향력은 종교적 은유를 빗대어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태일의 상징적 부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그의 글들이다. 물론 그의 분신(焚身)은 충격적인 죽음의 방식이자 발언의 형식으로서, 그 자체가 몸의 언어였다. 그 불꽃의 언어 덕분에 문자 그대로 자기 한 몸을 불살라 내뱉었던 외침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전태일의 죽음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징으로, 메시지로, 재현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생전에 썼던 일기, 수기, 소설, 진정서 등이 활자화되고 읽혔기 때문이다. 전태일의 글들에 담겨 있는 고통과 소망의 정념들이 그의 죽음의 방식과 결합되어 사회로 발신되고, 그의 죽음에 담긴 의미가 글들을 통해 해석되고 전파되면서 전태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

전태일의 분신이 큰 충격을 안겨준 직후 대학생, 기자,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신문, 학생회, 종교단체, 노동자들이 각각 사설, 조사, 성명서, 호소문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추모식과 시위도 여기저기서 열렸다. 그러나 일시적 반응을 넘어 오래 지속될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 11월『주간조선』에 이상현 기자가 보도한 전태일의 일기와『신동아』1971년 1월호에 실린 강성재 기자의 평화, 동화, 통일시장의 실태를 다룬 르뽀 기사와 전태일의 글들이었다.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주간조선』과『신동아』에

1) 오제연,「‘기독 청년’ 전태일과 전태일의 역사화」,『역사비평』2020년 겨울호, 161쪽 참조.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사무총장이었던 오재식은 분신 직후 전태일의 삶을 예수에 비견하는 글을 발표하고 “너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썼다. 오재식,「어떤 예수의 죽음-고 전태일씨의 영전에」,『기독교사상』1970년 12월호 및 조영래,『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돌베개, 1983, 248쪽 참조.

www.kci.go.kr

실린 전태일의 일기, 편지, 수기 등이 당대의 지식인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회고와 증언이 있다.[2] 아울러 조영래가 1970년대에 쓴 평전『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우여곡절 끝에 저자를 밝히지도 못한 채 1983년에 출간된 이후, 이 평전에 인용되고 수록된 전태일의 글들은 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전태일의 글이 그렇게 많은 공감, 감화, 각성의 화학작용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쓰기에 대해 그다지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의외의 일이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태일의 정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석정남, 유동우, 송효순 등의 노동자 수기와 1980년대 노동자문학과 노동자 글쓰기에 미친 영향,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통해 전태일이 수용, 전유, 담론화되는 방식 등에 주목하고 있다.[3] 1980년대 노동문학이 새롭게 조명받고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폭되는 최근 연구경향에서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나마 전태일의 글쓰기에 대해

2) 나중에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평전『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평전』(돌베개, 2016)을 쓰게 되는 민종덕은『신동아』에서 전태일의 일기를 읽고 감화를 받아 이소선 여사를 찾아갔고 전태일을 따라 평화시장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전태일이 민종덕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 논문으로, 오창은,「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한국문학이론과 비평』76집, 2017, 117-118쪽. 전태일의 편지, 수기, 일기 등이 1970-80년대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 미친 영향을 언급한 연구로는, 정종현,「노동자의 책읽기: 1970-80년대 노동(자)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사」,『대동문화연구』, 2014 참조.

3) 위에서 언급한 오창은, 김성은의 연구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성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성환,「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한국현대문학연구』37호, 2012.; 신형기,「전태일의 죽음과 대화적 정체성 형성의 동학」,『현대문학의 연구』1호, 2014.; 오창은,「전태일 이후의 한국소설과 기억의 정치」,『우리문학연구』62호, 2019.; 장성규,「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과정 연구」,『민족문학사연구』54집, 2014.; 정고은,「'전태일'의 이름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 1980년대 전태일 문학상의 주체화와 양식의 문제를 중심으로」,『상허학보』57집, 2019.; 정고은,「한국 노동문학과 '전태일'」,『한국사연구』191집, 2020.; 정종현,「노동자의 책읽기: 1970-80년대 노동(자)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사」,『대동문화연구』, 2014.

www.kci.go.kr

서는, 조영래의 평전을 토대로 전태일의 글들이 특정 시기에 어떤 장르로 쓰여졌는지 분석하면서 전태일의 글쓰기를 "자기 재현에 도달하기 위한 탐색 과정"으로 평가한 연구와, 전태일이 남긴 일기, 수기, 편지, 소설 초안을 장르별로 분석하면서 소설지향적 글쓰기를 시도한 이유를 제시한 최근의 연구 정도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4)]

그렇다면 전태일이 남긴 글들은 그 자체로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곳곳에 맞춤법의 오류와 비문들이 등장하고 미완성과 독백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한 전태일의 글들은 오직 저항적 지식인과 노동자들에 미친 영향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일까. 전태일은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노동현장에서 고된 착취에 시달렸던 1970-80년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지만, 그의 글은 '배우지 못한 자'가 남긴 미숙하지만 진솔한 글, 또는 "어설픈 문장, 두서없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글에서 엿보이는 삶과의 치열한 고투의 흔적"[5)]이 담긴 글 정도로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무도 수준 높은 문학성과 엘리트적 완성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재생산되어온 전태일 글쓰기의 신화는 그래서 기묘하다. 삶은 고결하고 훌륭하되 그의 삶이 빚어낸 '기준에 미달하는 글쓰기'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칠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나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전태일의 글이 1970-80년대의 다른 노동자들이 출간을 염두에 두고 다듬어낸 책과 글들보다 더 강력한 힘과 현재성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가 살아간 방식과 죽은 방식뿐만 아니라 그의 글 자체가 가진 의미

4) 박숙자와 이정안의 논문은 전태일의 사후적 영향력에 주목하기보다, 그의 일기, 편지, 수기, 소설 초안 등이 조영래의 평전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나 글쓰기 자체의 변화 과정 및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유의미하다. 박숙자,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 『전태일 평전』」, 『국제어문』 67집, 2015.; 이정안, 「전태일의 글쓰기 변화과정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72호, 2018.

5) 이정안, 위의 글, 283쪽.

www.kci.go.kr

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위 노동문학 작가가 아닌 작가들이 전태일의 글에 대해 내린 평가를 거론하는 것도 여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일례로 소설가 박완서는 「두 개의 평화시장」이라는 글에서 "평화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재미"를 언급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전태일의 글을 언급한 바 있다. "나에겐 낭비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 기분을 내게 하는 평화시장 말고 또 하나의 평화시장이 있다. 그건 전태일의 평화시장이다. 이젠 거의 잊혀진 이름이 되었지만 70년대에 그가 남기고 간 절규는 나의 안일한 일상을 마구 고문하듯 고통과 충격을 주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 당한 고문은 멍으로 남아 있고, 그의 수기는 다시 읽어도 역시 비통한 감동을 준다." "두 개의 평화시장"을 "도저히 하나로 만나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됨의 한계"를 느낀다는 고백이 담긴 이 글에서 전태일에 대한 언급은 매우 짧다. 하지만 박완서가 전태일의 글을 여러 번 읽었으며 그때마다 "비통한 감동"을 느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6)]

다른 하나는 활자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설가 최인훈과 관련된 개인적 일화이다. 나는 2020년 6월 우연한 기회에 유족의 안내로 최인훈의 발자취를 따라 생전에 그가 살았던 집들을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최인훈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일산의 집에서 하루의 일정이 마감되는 순간, 그의 아드님은 아버지의 독서 습관을 소개하기 위해 책장에서 책을 꺼내왔다. 아버지 최인훈이 평소 특별하게 여겼다는 그 책은 바로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이었다. 읽을 때마다 밑줄 긋는 형광펜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아드님의 설명에 따르면, 최인훈은 『전태일 평전』을 세 번 읽은 셈이었다. 내가 놀라워하자, 아드님은 아버지가

6) 박완서, 「두 개의 평화시장」,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가』, 문학동네, 2015, 60쪽.

www.kci.go.kr

더 아끼는 책이었다며 전태일의 수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도 꺼내왔다. 그는 아버지 최인훈이 전태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는지 이야기했고, 특히 "내 안의 또 다른 나"같은 표현은 어떤 작가도 쓰기 힘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감탄했었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또한 조영래의 저술이라고 생각한 『전태일 평전』보다 전태일의 수기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밑줄조차 긋지 않을 정도로 아꼈다고도 했다.[7]

박완서와 최인훈과 전태일은 문학사에서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인다. 아마 전태일은 한국 현대사회의 위대한 기록자이자 실험적 소설들의 대가인 최인훈의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완서는 전태일이 분신하기 몇 달 전 작가로 데뷔했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던 최인훈은 전태일의 평전과 일기를 읽었고, 그의 글쓰기가 지닌 문학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것은 최인훈이 당대 사회문제에 대해 가졌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전태일의 글쓰기가 가진 특별함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이 글이 전태일의 삶과 사후 몇십 년간의 전유방식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그의 글, 글쓰기를 살펴보려는 이유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8]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전태일로 대표되는 당시 노동자의 상황이나 역사적 문맥보다는, 그의 글쓰기를 만들어낸 원천과 효과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

7) 이 일화를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싣도록 내용을 확인하고 허락해주신 최인훈 작가의 아드님 최윤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 그래서 이 글의 주요 분석대상은 조영래의 평전이 아니라 전태일의 글을 모아놓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돌베개, 1988)이다. 전태일이 남긴 글은 1970년 11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이상현이 가져간 부분이 유실되었으나 재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이 책에 게재되지 않은 글들도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글들은 유족의 공개와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www.kci.go.kr

## Ⅱ. 차용과 변용의 글쓰기

전태일이 오랫동안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조영래의 평전인데, 이 책은 전태일의 삶과 "사상"[9]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로 그가 1969-70년에 남긴 수기와 일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전태일이 마지막 1년 동안 쓴 글들이 직접적으로 그의 사상적 편린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취재와 인터뷰로 보완된 이 책의 앞부분에서 1967년의 일기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1967년 일기에서 "금희누나"에 대한 격렬한 짝사랑의 고통을 호소한 부분, 여러 문학작품들을 필사하면서 내면을 토로한 부분 등은 도외시되었고, 조영래는 전태일의 가난이나 '배움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는 문장들에 주목했다.

전태일의 신화에는 배우지 못했으면서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 또는 배우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글을 쓴 자, 배우지 못했으면서 계급의식을 각성한 자라는 점이 자리한다. 실제로 그의 위대함을 거론할 때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전태일이 평생 받은 정규교육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추적이 힘들 정도로 간헐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발상이다.[10] 그러나 정규교육과정만으로 한 사람의 지식과 배움을

9) 조영래는 전태일의 글들에서 단편적인 생각들을 추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비인간에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민중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아예 4절의 제목을 '전태일의 사상'으로 지었다. 인용은 조영래, 위의 책, 157쪽.

10) 전태일이 남긴 수기에 서술된 여러 학교 입학과 중퇴 시기 등은 유족의 발언을 토대로 남아 있는 그의 '약력'이나 조영래 평전의 사실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에 실린 약력과 조영래의 평전에는 1956년 남대문초등공민학교에 2학년으로 처음 입학하여 1960년에 남대문국민학교에 편입했다가 곧 중퇴했으며, 1963년 대구 청옥고등공민학교에 입학했다고 되어 있으나, 전태일이 직접 쓴 수기에 따르면 9살 때(1957년) "남대문초등공민학교에 2학년으로 처음 입학"하고, 4.19가 일어나던 1960년 "남대문국민학교 편입생으로" 혼자 시험에 합격하여 전학한 뒤 1961

www.kci.go.kr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학력중심주의적인 단정이다. 전태일 스스로 "동대문상고 옆에 있던 동광교회에 권선생님이 지도하는 야간학교에 입학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11] 몇 년 안되는 정규교육과정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가 "대학생 친구 한 명"을 간절히 바랄 만큼 법전『근로기준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래서 좀더 쉬운『근로기준법 해설』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법전은 지금의 대학생이 읽어도 쉬운 책이 아니다. 또한 구두닦이, 신문팔이, 구걸 등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재단사로 취직한 이후에도 하루 14-15시간의 고된 노동을 했던 그가 충분한 독서와 문화생활을 할 수 없었으리라는 가정 때문에, 전태일의 교양 습득 수준이나 지적 능력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일기를 토대로 추측해볼 때, 전태일은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훨씬 더 많은 교양을 습득하고 틈나는 대로 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돈이 없어 "곤로"와 "입고 다니는 맘보바지"를 팔아야 했던 1967년 2월 20일 자 일기에 따르면,[12] 그는 전날 "미도파 상층 미우만극

---

년 "4학년을 조금 배우다가 중퇴"를 하였다고 한다. 그가 남대문초등공민학교 2학년(1957년)부터 약력에서 말한 대로 1960년까지 다니다 편입했는지, 혹은 남대문국민학교 2학년(1960년)에서 4학년(1962년) 초까지 다닌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전태일은 "국민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하였지만" 1963년 대구의 청옥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때가 이미 "진도가 2개월 가량 나간" 상태였고 겨울이 되자 다시 학업을 중단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뒤 서울로 가출했기 때문에, 대구의 학교는 대략 5월-12월까지 다닌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정규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태일 스스로가 말하는 학교 경험과 기간에 대해서는, 전태일,『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88, 28-30쪽, 45쪽, 51쪽 등 참조.

11) 전태일, 위의 책, 29쪽.

12) 일기에는 "67. 2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2월 17일자 일기에 바지와 곤로를 팔 생각을 하고 이 일기를 쓰기 전날 그 물건들을 팔 결심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20일"의 오기로 보인다. 전태일, 위의 책, 91쪽과 95쪽 참조.

www.kci.go.kr

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그가 “제목은 잘 모르겠고 영국 영화 ‘실업왕 찰스와 기억상실증’이라고 해두자”고 하는 영화는 1942년 제작된 『마음의 행로』로 추측된다. 육군대위 찰스가 전쟁 당시의 쇼크로 기억을 상실한 뒤 거리를 방황하던 영화 전반부의 줄거리를 요약하다 흐지부지하게 마무리하는 문장을 보면, 그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생활용품들을 팔아야 했던 와중에도 영화를 감상한 것이 확실하다. 2월 26일자 일기에는[13] 다시 “미우만극장”에 가서 영화 『탈주특급』[14]을 본 소감이 정확한 제목과 함께 적혀 있다. 다른 영화 『사녀 드라큐라』도 함께 걸려 있었지만, 그는 이 영화를 선택했다. 그는 주인공 조셉 라이언 역을 맡은 프랭크 시내트라보다 독일군 수송장교로 위장하는 목사 콘스탄쪼 역할의 에드워드 멀헤어를 더 마음에 좋아하면서, 그가 주인공을 맡았어야 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전태일이 영화관람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거의 없지만, 일주일 사이에 두 편의 영화를 보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시기에 문화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전태일의 일기와 소설 초안들에는 그가 보고 듣고 읽은 문화적 원천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시집, 문학이론서 등에서 빌려온 구절들이 많지 않은 분량의 글쓰기에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는 여러 인용구들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들을 풍부하게 드러냈는데, 당대의 대중가요를 부분부분 차용하고 변형하고 그의 문장과 뒤섞은 방식을 보면 그것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신이 사랑하던 ‘금희 누나’를 포기하기 위하여 평소 존경하던 ‘이희규 선생’에게 추천하는 편지를 쓰고 난 후 괴로운 심정을 담

13) 전태일, 위의 책, 105쪽.

14) 1965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원제는 『Von Ryan's Express』이다. 마크 롭슨이 감독했고, 프랭크 시내트라, 프레버 하워드 등이 출연한 제 2차세계대전 소재의 영화다. 참고로 『사녀 드라큐라』는 1966년에 개봉한 영국 영화로, 원제는 『The Reptiles』이다.

www.kci.go.kr

은 1967년 2월 15일자 일기를 들 수 있다.[15]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최희준의 익숙한 〈하숙생〉(1965) 가사로 시작한 문장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도 못맺을 사랑이기에"라는 문장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사람의 운명 속에 외로운 그대와 나. 어두운 밤하늘 비오는 낙동강에 저녁놀을(이) 짙어지면 흘려보낸 내 청춘"이라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이 표현은 문주란과 안다성이 각각 부른 노래 〈비극은 없다〉(1959) 가사와 이미자의 노래 〈저 강은 알고 있다〉(1965)의 가사를 합친 것이다. 〈비극은 없다〉에서 "사랑에 운명 속에 외로운 그대와 나, 어두운 밤하늘의 날아가는 낙엽처럼 맺지 못할 인연 속에 흩어지는 청춘"이라는 부분을, 〈저 강은 알고 있다〉에서는 "비 오는 낙동강에 저녁노을 짙어지면 흘려보낸 내 청춘이 눈물 속에 떠오른다"라는 가사를 약간씩 바꾸어 결합한 것이다. 다시 이 문장은 "못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가 알아주리 기막힌 내 사연."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미자의 다른 노래 〈울어라 열풍을〉(1959)에 나오는 "못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임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구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이라는 가사에서 끝부분만 변형된 것이다. 일기의 이 단락은 차용한 가사들의 조합이 아니라 전태일이 스스로 써서 덧붙인 문장들로 끝난다. 이 일기에서 원래의 가사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사의 특성 상 전태일이 착각하거나 혼동해서 잘못 옮겼다고 생각하기 쉽다.[16] 그러나 최희준, 안다성과 문주란, 이미자의 두 노래 등 4편의 노래 가사들이 약간의 변

15) 전태일, 위의 책, 88쪽,

16) 전태일은 최무룡의 노래 〈추억은 영원하리〉(월견초 작사, 이인권 작편곡, 1963)의 가사를 정확히 옮겨 놓고 있기도 하다. "어두운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장미는 시들어도 다시 피련만 사랑은 불사조인가 물망초던가. 내 가슴 벌레 먹는 그 님이건만 남몰래 이 노래를 님께 바치리." 전태일, 위의 책, 89-90쪽.

www.kci.go.kr

형 속에 짧게 인용되며 이어지고 전태일 자신의 문장과 조합되는 이 일기 문장의 특성은, 그가 '시'를 옮겨올 때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태일이 감응하여 본격적으로 옮겨 적은 시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김소월이다. 1967년 2월 18일자 일기에 베낀 〈못잊어〉, 2월 19일자 일기의 〈밤〉과 〈초혼〉, 다시 2월 20일(30일로 오기)자 일기에 나오는 〈산유화〉와 〈잊어(었)던 맘〉, 〈옛 이야기〉, 〈진달래꽃〉, 〈널〉은, 시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도 각 시들의 제목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그는 〈못잊어〉를 읽고 "정말 너무나 말도(로) 다 포(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료(로)잡혀 다른 시를 또 하나 골라보았다."면서 다른 시들을 베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시들은 그가 읽은 어느 시집에서 보고 '베낀' 것이기 때문에, 간간이 약간의 오자는 있어도 대부분 완전하게 김소월의 시 전문을 옮기고 있다. 다만 몇 편의 시에는 전태일의 '의도적인' 변형이 들어가 있다. 가령 김소월의 〈널〉에서는 4연에서 "오오 누나 희젓이 늘어져서 그늘이 깊소"라는 부분을 옮겨적으며 일부러 "오오 금희 누나"라고 연모의 대상을 밝혀 썼다. 〈초혼〉의 경우, 시가 끝난 다음 김소월의 다른 시 〈부부〉의 후반부 7줄이 그대로 2연으로 나뉘어 제목 없이 붙어 있어서, 마치 〈초혼〉과 〈부부〉 후반부가 한 편의 시인 것처럼 오해하게 옮겨져 있다.[17] 이것은 그가 이은상 시에 현제명이 곡을 붙인 유명한 가곡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의 가사를 다 옮겨적은 다음, "내 영혼의 초(촛)불 뒤로 샛별아 숨어라."라는 구절을 옮겨 붙인 것과 유사하다. 이 구절은 조지훈의 시 〈산상(山上)의 노래〉 3연의 일부인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18]라는 구절을

17) 전태일, 위의 책, 94쪽. 그가 〈초혼〉 말미에 옮겨 붙인 시 〈부부〉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분으로 얽은 딴 두 몸이라면/ 서로 어그점인들 또 있드라/ 한평생이라도 반백 년/ 못사는 이 인생에// 연분의 긴 실이 그 무엇이랴?/ 나는 말하려노라 아무려라/ 죽어서도 한곳에 묻히더라"

18)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1945. 여기서는 조동

www.kci.go.kr

변형한 것인데, 이것은 그가 조지훈의 시구 일부를 베낀 것이 아니라 '외워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적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태일이 김소월의 작품이 아닌 다른 시들을 옮겨 적지 않고 '외워서' 적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시들은 또 있다. 그가 김소월 외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만영의 시집이자 자작해설서 『이정표』이다. 전태일은 장만영 시인의 이름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지만, 『이정표』라는 시집 제목은 특별한 표시 없이 남겨 놓았다. 2월 17일자 일기는 이 책의 〈서(序)〉로 언급된 시를 적고 있는데, 전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변형되어 있다. 전태일이 써둔 시와 장만영의 시 원문은 다음 쪽에 나오는 상자 속에 비교되어 있다.[19]

다음 쪽에 적힌 전태일의 시가 나오는 일기는 그가 이희규 선생에게 사랑하는 누나를 추천하는 편지를 부친 다음날이자, 곤로와 바지를 팔까 말까 고민하며 주머니 속 돈을 계산하는 날에 쓰여졌다. 시구들이 재배치된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기억하는 대로 두서없이 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두 편의 시를 비교해보면, 전태일이 장만영의 시에서 문장들을 가져왔지만, 순서와 표현이 마구 바뀌고 어떤 연은 송두리째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달 포도 잎사귀〉로 유명한 장만영은 오늘날 많이 잊혀졌지만 당시 꽤 명성을 얻은 시인이었고, 전태일은 그의 시를 외우고 있을 만큼 여러 차례 읽었음에 틀림없다.

전태일은 장만영의 자작해설서 『이정표』를 매우 꼼꼼하게 읽었던 지, 이 책에 실린 다른 시들도 다른 날짜의 일기에서 여러 차례 남겨두고 있다. 1967년 2월 15일자 일기에는 "산을 넘어가볼까/ 산넘어 저쪽/

탁(조지훈), 『조지훈 전집』, 일지사, 1973, 188쪽에서 인용.

19) 전태일, 위의 책, 90-91쪽.; 장만영, 『이정표』, 신흥출판사, 1958, 2-3쪽. 이 시의 표현은 1969년 일기에서도 "나는 삼거리에 이정포(표)처럼 누가 같이 가자고 하는 이가 없구나. 바람이 부나, 눈비가 오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어(여)야 하는 나."라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한다. 전태일의 책, 125쪽 참조.

www.kci.go.kr

이정표(里程標)에서

(전태일의 인용 전문)

내 이름은 이정표
여기 이대로 매여 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절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말벗 하나, 안식의 시간마저 없다
아 아 나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
갈가마귀들도 산으로 갔다. 둥지를 찾아
황량한 들판을 헤매다니던
해떨어지자 저녁하늘에 노을이 비낀다.

서(序)

(장만영의 시 원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 이대로 매여 있는
내 이름은 이정표.

유달리 키가 커 쓸쓸한
낙엽송으로 만든 굵다란 말뚝--
오늘도 나는 묵묵히 오가는 길손에게
그들이 걸어 온, 걸어 가야 할
목적지에의 이정을 표시 한다.

해 떨어지자 저녁 하늘에 노을이 비낀다.
황량한 들판을 헤매 다니면
갈가마귀들도 산으로 갔다, 둥지를 찾아.
아아 나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수도 없다.
말벗 하나, 안식의 시간마저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 이대로 매여 있는
내 이름은 이정표.

조그만 마을 있어/ 가버린 소녀/ 오늘도 피리 불며/ 그 마을 사리."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장만영이 쓴 시이다.『이정표』64쪽에 실린 이 짧은 시는, 그가 그 1957년에 출간한 시집『밤의 서정』에 실은 〈출발〉이라는 시에 응답한 "반가(返歌)"이다. "반가"란 보통 어떤 시에 다른 시

www.kci.go.kr

인이 화답하는 시인데, 그는 김광균의 시 〈녹동묘지에서〉와 그 시에 대한 반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쓴 시에 응답하는 시도 남긴 것이다. 물론 전태일은 원문의 넷째 줄에 있는 '소년'을 '소녀'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연애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시로 전환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정표』의 132쪽에 실린 〈귀성(歸省)〉이라는 시에서도 "알아봐 무엇하리(랴) 나는 나그네./ 아무도 모르게 찾아 왔다./ 내일은 다시 떠나려는 내 고향."이라는 4연의 구절이 따로 떼내어 단독으로 옮겨져 있다.[20] 하지만 118-119쪽에 실린 시 〈정동 골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좀더 적극적인 변형이 시도된 채로 옮겨져 있다.

| 전태일이 변형하여 옮긴 <정동골목> | 장만영의 <정동골목> 원문 3연 |
|---|---|
| 그 무렵<br>나에게 사랑하는 소녀 하나 없어(었)건만<br>어딘가 사랑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br>외롬에 젖은 가슴 위에<br>희망은 보름달처럼 둥긋이 떠있다. | 그 무렵<br>나에겐 사랑하는 소녀 하나 없었건만<br>어딘가 내 아내 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br>음악 소리에 젖는 가슴 위에<br>희망은 보름달처럼 둥긋이 떠 올랐다. |

책을 옆에 두고 베꼈다면, "외롬에 젖은 가슴"이나 "둥긋이 떠있다" 등으로 일부러 바꿔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태일은 마치 『이정표』의 〈서(序)〉의 시구를 1969년 일기에서 다시 변형하여 등장시킨 것처럼, 이 시도 거의 한달 뒤인 67년 3월 20일자 일기에서는 다시 금희 누나를 그리워하며 "지금도 이야기하고픈 내 누님.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긋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21] 그가 장만영의 책을 참조하되, 시를 외운 기억을 되살리며 일기에 적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 전태일, 위의 책, 89쪽.; 장만영, 위의 책, 132쪽.
21) 전태일, 위의 책, 111쪽.

www.kci.go.kr

전태일이 열심히 읽은 장만영의 책 『이정표』는 '자작시해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장만영의 시만 실린 것이 아니라 한국과 외국의 유명 시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장만영이 어느 번역서나 판본을 이용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충 유명한 작품들만 나열해도 『불란서시집』에 실린 폴 베를렌느의 〈슬픈 대화〉, 구르몽의 〈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시집』에 실린 〈기도〉와 〈소녀의 노래〉, 아폴리네르의 〈미라보다리〉, 워즈워드, 타고르, 블레이크, 프랜시스 잠 등의 시들이 원문 그대로 실려 있다.[22] 장만영에게 영향을 미친 김광균, 김기림, 김동환, 김소월, 김영랑, 노천명, 신석정, 이상화, 이육사, 조지훈, 한용운 등과 정지용의 시 원문 다수도 실려 있다. 이 책이 시인 자신에 의한 자작시 해설서이기 때문에 각종 시 착상 과정과 창작과정, 각종 표현의 이유, 내면과 정조의 표현 방식 등 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전태일은 이 책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든 몇 편만을 옮겼을 따름이지만, 생각날 때마다 몇 편의 시들은 외워 적을 수 있을 만큼 책 전체를 꼼꼼하게 읽고 시의 표현과 창작방법을 습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태일이 이러한 책들을 일종의 글쓰기 교재처럼 이용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1970년 초에 작성된 〈소설초안 2〉이다. 이 초안 앞부분에는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적어둔 요약본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특질'을 정리한 부분이나 소설의 종류를 '역사소설, 객관소설, 심리소설'로 분류한 내용은, 1945년 출간된 백철의 『문학개

22) 장만영은 1954년 『세계서정시선』(정양사) 7권을 펴냈는데, 1권 불란사편, 2권 영국편, 3권 독일편, 4권 미국편, 5권 남구(南歐)편, 6권 중국편, 7권 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자 표기는 따로 되어 있지 않다. 『이정표』에 실린 해외시들은 이 작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론』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백철이 『문학개론』을 1945년부터 1969년까지 거의 15차례에 가깝게 개정하면서 출판사와 내용을 조금씩 바꿔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전태일이 이 소설 초안을 쓴 1970년 초에 이미 출간된 지 오래된 백철의 책을 직접 읽었다기보다는 그의 책을 토대로 작성된 다른 개론서나 강의록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가 소설을 쓰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전태일이 국문학과 전공과목에서 활용되는 문학개론서를 토대로 소설 장르를 이해하려고 했음은 분명하다. 물론 그가 자신이 읽은 소설이나 서사문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23] 1970년 초의 일기에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톨스토이의 『부활』을 제목만 언급한 부분도 있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어떤 구절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며, 작가 모파상을 착각하여 도스토예프스키로 서술해두었지만 소설 『비계덩이』의 특정 장면을 묘사하며 소감을 기록해둔 부분은 그가 소설을 읽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24]

기존 연구에서 전태일이 읽은 책 중 주목받은 것은 『통신강의록』과 『근로기준법 해설』 두 권에 불과했다.[25] 하지만 1967년 일기에 삽입된

23) 전태일이 금희 누나를 '이모'라고 부르던 시기인 1967년 2월 22일자 일기에는 "이모집에서 나올 때 빌려 가지고 나온 소설, 풋네기 처녀는 빵집에 앉아서 다 읽어버"렸다는 서술이 나오지만, 이 소설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학생 하루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 소설일 수도 있으며, 1966년 이문우가 출간한 『풋내기 처녀』(오성출판사, 1966)일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태일, 위의 책, 102쪽.

24) 전태일, 위의 책, 131쪽. 정의진은, 전태일의 유서로 알려진 글의 일부인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같은 구절이 "알베르 카뮈의 『반항인』을 통해 유명해진 시지푸스 신화의 차용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전태일이 다양한 경로로 당대 한국의 복합적인 문학예술적 층위에 연동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진, 「문학개념의 역사적 재구성과 노동자 글쓰기: 1830년대 프랑스 노동자들의 텍스트와 전태일의 유고에 대한 비교연구 시론」, 『한국학연구』 45집, 2017 참조.

25) 앞에서 언급한 박숙자의 논문이 이 두 책의 의미에 주목하여 전개된 연구이다.

www.kci.go.kr

김소월, 장만영, 조지훈, 이은상 등의 시와 그것을 수록했던 책들, 당시 개봉한 영화들에 대한 기록은, 비록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다 해도 그가 '공부하는 노동자'이자 '글쓰는 인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시를 외우고 소설들을 읽고 시 쓰기와 소설 쓰기에 대해 공부하던 그의 글쓰기는 점점 더 성숙해진다. 그 배경에는 그가 끊임없이 영화, 대중가요, 시, 소설 등에서 흡수해온 문화적 자양분들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전태일은 처음부터 민중의 대변인이거나 노동열사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시를 읽고 영화를 보고 대중가요를 읊조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 일기의 상당 부분이 다양한 문화적 원천들을 흡수한 결과인 수많은 차용, 인용, 변형을 통한 재배치와 재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그 의미는 상당하다. 오히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가 시도하는 차용의 글쓰기는 사회의 통념이 제시하는 규약들을 벗어나려는 출발점이다. 전태일이 다양한 책들에서 읽고 외운 문장들을 통해 보여준 '차용과 인용의 글쓰기'는, 자끄 랑시에르가 말한 대로 "차용된 말들로 자신의 언술을 구성하는 비정상적인 프롤레타리아"[26]의 글쓰기라고 할 만하다. "문사들의 유산으로부터 탈취해올 수 있었던 일부 텍스트들을 마음으로 듣고 익히는 것, 읽고 옮겨 적는 것,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중등교육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의 슬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해방의 영토 위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27]이기 때문이다.

---

26) 자끄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1, 35쪽.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도착적인(Perverted) 프롤레타리아"라고 옮겨져 있지만, 영어 번역본을 참조하여 '정상에서 벗어난'이라는 의미를 살려 "비정상적인"이라고 고쳤다. Jacques Rancière, *Proletarian Nights: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 France,* translated by John Drury, Verso, 2012, p.15 참조.

27) 자끄 랑시에르, 위의 책, 230쪽.

www.kci.go.kr

## Ⅲ. 개인성과 보편성이 만나는 소설을 향하여

전태일은 차용을 통한 글쓰기로 일기장을 채우곤 하던 1967년을 지나 1969-70년 즈음에 이르러 훨씬 더 안정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보여준다. 1967년과 69년 사이의 글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글의 장르, 문장력, 표현력 등은 다양해지고 논리정연해졌다. 그래서 1969-70년 사이의 약 1년간 작성된 글들이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지고 조영래의 평전에서도 더 자주 인용되었다. 1969년 9월-12월 사이의 일기는 다른 텍스트로부터의 차용 없이 거의 자신의 문장으로 된 짧은 단상과 메모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다른 글들은 3개의 소설 초안,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쓴 진정서와 노동청장에게 보낸 근로조건개선 진정서, 모범업체 설립 계획서, 설문지 등이다. 〈소설 초안〉 1과 3 각각에는 배경 묘사를 위해 맨드라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채송화 등의 꽃과 철망을 의인화시켜 등장시킨 부분이 변형되어 등장하는데,[28] 이것은 그가 세밀한 묘사와 참신한 상상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문장을 훈련했음을 보여준다.

전태일의 글들이 기존 연구에서 인정받은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문학성이나 완성도가 아니라 전태일 자신의 삶을 기록한 개인적 진실성의 힘이라는 측면이었고, 그가 남긴 세 개의 소설 초안들은 종종 자전적인 이야기로 취급되었다. 세 번째 소설 초안이 "소설이 아니라 전태일의 삶을 담아낸 이야기"이자 "마지막 결말을 제외한다면 전태일의 삶을 정리한 한편의 '전기'라고 생각될 정도"라는 평가는,[29] 소설을 전기적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그대로 인용한 조영래의 평전 이후 보편화

28) 전태일, 위의 책, 140-141쪽, 152쪽 각각 참조.
29) 박숙자, 앞의 글, 54쪽.

www.kci.go.kr

된 생각이다. 또한 그가 '소설을 완성시키지 못한 실패 때문에 육체로 말하는 길을 선택했다'거나 그의 글들이 "서발턴의 진실된 기록"이라는 평가[30] 역시 전태일의 소설을 거의 자서전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모두 일기, 수기, 편지, 소설 등이 "자기 재현에 도달하기 위한 탐색 과정"이자 "노동자들의 자기 재현 문제를 본격화했다는 의의"를 가졌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31]

전태일의 글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문학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노동자들의 수기와 1980년대 노동문학 작가들이 전태일을 전범으로 삼아 글쓰기를 시도한 결과물들은, 최근 십여 년 간 학계에서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연구가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의 근원에는 최근 십여 년 간 한국 학계에서 널리 읽힌 랑시에르의 영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강인하고 투쟁적이며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을 지닌 투사들"이라는 대중적 고정관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의식을 주장하는 알튀세르를 비롯한 이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사유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 사이의 플라톤적 위계를 떠받쳐온 감성과 담론의 분할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32]

하루의 노동을 마친 후 문학책을 읽고 글을 쓰는 노동자들의 밤에서 지적 삶에 대한 열망을 찾아낸 랑시에르의 저작은,[33] 한국의 연구자들

30) 이정안, 앞의 글, 280, 283쪽.
31) 박숙자, 55쪽. 이정안, 263쪽 참조. 오창은의 앞의 글도 "민중의 자기기록"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쓰여진 논문이다.
32) 자끄 랑시에르, 앞의 책, 29, 34쪽에서 인용. 정의진의 논문은 랑시에르의 이러한 철학을 정리하고 1830-50년대 프랑스 노동자들의 글쓰기와 전태일의 글쓰기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제시하고 있다. 정의진, 앞의 글 참조.
33) 랑시에르 책의 번역과 그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주로 프랑스 초기 노동자들의 글이 전태일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지적 열망은

www.kci.go.kr

이 전태일의 글에 영향을 받은 1970년대 말-1980년대 노동자 글쓰기에도 유사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국내 연구들이 말하는 대로 전태일이 기존의 문학 개념으로 설명 불가능한 노동자 글쓰기의 출발점이자 모델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일부 연구가 말하는 대로 전통적이고 엘리트주의적 문학 개념을 전태일 스스로가 재설정했다는 진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결론은 너무 나아간 것이다. 예컨대 전태일이 "논픽션적 서사를 소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소수에 의해서만 창작 가능한 문화적 엘리티즘에 의해 구성된 문학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 등이 그것이다.[34] 그러나 전태일은 스스로 기존의 부르주아적 문학 개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르주아적 글쓰기"를 갈망한 당사자였다.

전태일은 순수작가들의 시와 소설과 영화를 읽고 베끼며, 정통 문학 이론서를 참조해 소설 창작을 연습했다. 동시에 그의 소원은 "모범업체"를 만들어 "사장"이 되는 것이었는데, 정직과 차별 없는 대우를 모토로 삼는 그 업체의 이름을 "태일피복"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다.[35] 모범적 사업주가 되고 싶었던 전태일의 공상적 꿈이 프롤레타리아적 계급

---

프랑스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가령 조나단 로즈는 대략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 노동자들의 독서문화를 형성한 배움에 대한 열망을 노동계급의 회고록, 일기, 도서관 대출 기록, 도서판매 정보 등을 통해 분석했는데, 노동자들이 엘리트 계층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자조(self-help)적으로 형성한 독서문화를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랑시에르의 문제의식과 통하는 점이 있다. 랑시에르와 관점이 다르지만, 19세기 초반 영국 노동자들의 "독학자 문화"가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투쟁과 관련하여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연구로는 E.P. 톰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nathan Rose, *The Intellectual Life of the British Working Classe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E.P.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하권, 나종일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0, 362-385쪽 참조.

34) 장성규, 앞의 글, 67쪽.

35) 전태일, 앞의 책, 132쪽.

www.kci.go.kr

의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노동자들의 작업장을 구성하는 질서를 새롭게 바꾸고 싶은 꿈이었던 것처럼, 부르주아적 문학을 쓰고 싶어했던 소망도 노동자에게 할당된 전통적 역할과 몫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평화시장 재단사에서 해고당하고 공사판 노동자로 일하며 한창 '바보회'와 '삼동친목회'를 만드는 등 활동에 바빴던 시기, 그리고 분신에 대해 고민하며 점점 결단을 향해 나아가던 시기에 '소설' 쓰기에 집중한 것은 얼핏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전태일은 소설을 계속 써나가면서 점점 더 자신의 부르주아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노동자의 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법대생 김준오와 여자친구 정희를 중심으로 집필된 전태일의 첫 소설 초안은 다른 두 개의 소설 초안과 달리, 미완성이 아니라 주인공의 자살로 끝나는 짧은 단편소설이다.[36] 기존의 연구들이 두 인물을 전태일과 금희 누나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전쟁고아가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해야 하는 스토리 때문이다. 하지만 〈가시밭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소설은 순전히 전태일의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허구이다. 그가 금희 누나를 짝사랑했을 뿐 실제로 연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두 등장인물의 연인 같은 대화와 장난은 문학작품에서 읽었을 대화 장면을 토대로 창조된 것이다. 준오가 "법 자체의 모순을 시정하지 못하자 법이 시정되기를 기도"하며 자살했다는 단신 기사 문구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법을 왜 어떻게 시정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 단편소설에서 전태일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가난 때문에 사랑 앞에서 좌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인물의 신파 스토리처럼 보편성과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을 뿐이다.

1970년 초에 집필된 두 번째 소설 초안 앞부분에는 〈어쩔 수 없는

36) 전태일, 앞의 책, 140-143쪽 참조.

www.kci.go.kr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 외에도 소설 쓰기와 관련된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초안은 첫 번째 단편소설과 다르게 15개의 번호 순서대로 오직 '구상'만 서술한다. 주인공의 친구들이 '바보회 회원'으로 지정되는 등 실제를 떠올릴 만한 디테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설정은 허구이다. 주인공이 사람을 죽였다는 모함을 받다가 법정에서 일기장을 공개하자는 남동생의 설득으로 위기를 벗어난다는 내용은, 추리소설과 법정소설의 형식을 섞은 것으로 보인다. 첫 초안과 달리 주인공의 가난이나 여자친구인 '숙'은 대수롭지 않게 처리되며, 사건이 반전되는 계기가 주인공의 일기장에서 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동생이 형을 어떻게 설득하여 일기를 공개하게 되었는지는 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주인공은 여기서 '글쓰기'의 힘을 믿는 인물이다.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글이 법정에서 공개된 직후의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관청석은 말없는 무거운 고요가 내려 덮혀(여)있다. 기여히(기어이) 울음이 터지는 관청석, 재판장도 마음 속에 뜨거움을, 검사도 판사도 느낀다. 폐정, 또 다시 울음. 폐정. (중략) 판결은 무죄."[37] 이 결말은 전태일이 일기장 속의 글쓰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덕분에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 속의 실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미스테리 법정소설 같은 형식은, "자신의 과거를 복사해놓은 일기장"에 써놓은 글들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일 뿐이다.

1970년 봄 세 번째로 쓰여진 소설 초안은 앞의 두 소설에서 획득한 믿음을 토대로 쓰여졌다. 전태일의 글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논리정연한 문장들로 서술된 구상이기도 하다. 총 19개의 번호 순서대로 줄

37) 전태일, 앞의 글, 148쪽.

www.kci.go.kr

거리가 진행되는 이 초안은, 평화시장의 어린 시다들을 보고 느꼈던 안타까움과 부친의 사망, 바보회 조직 이후 친구들과의 의견 대립, 근로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와 사업주들의 위선, 이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사실상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평가되어왔다. 19개 플롯 뒤에는 유서,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등장하는 꽃밭을 배경으로 5번 미싱사와 대화하는 장면, 어느 선생님께 노동자들의 고된 현실을 고발하는 편지가 붙어 있다. 아마 이 작품이 완성되었다면, 소설의 일부로 삽입되었을 만한 장면들이다. 조영래가 전태일의 진짜 유서처럼 활용하며 평전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게 한 〈유서〉도 이 소설의 일부이다. 전태일이 개인적 기록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유서와 편지가 소설의 한 장면이 되게 만든 것은, 두 번째 초안을 쓸 때 얻은 믿음, 즉 가장 개인적인 글쓰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경제관념에 반항하는 청년의 몸부림〉이라고 제목이 붙은 세 번째 소설초안은 전태일이 소설을 써야 했던 이유와 여러 번의 습작 끝에 다다른 곳[38]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더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적인 체험을 역사와

38) 기존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태일의 글쓰기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조영래가 그의 글들로부터 일종의 성장과 각성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전태일 스스로 끊임없는 구상과 습작을 통해 다다른 곳이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출발점에서는 무엇을 쓸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론가 다다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푸코의 다음 언급을 참조할 수 있다. "글쓰기란 본질적으로,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해줄 어떤 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실현됩니다. 내가 하나의 연구, 한 권의 책, 또는 또 다른 무엇이든, 어떤 것을 쓰기 시작할 때, 나는 그 글이 어디로 갈지, 어떤 곳에 다다르게 될지, 내가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바로 그 움직임 자체 안에서만, 내가 증명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셸 푸코, 『상당한 위험』, 허경 옮김, 그린비, 2021, 33쪽.

www.kci.go.kr

사회의 객관적 지평에 올려놓기 위해서 소설의 형식을 필요로 했다. 전태일은 소설초안들을 쓰기 직전에, 미완성으로 남은 두 편의 '수기'를 썼다.[39] 그러나 그는 곧바로 '수기' 형식을 버리고 소설의 형식 속으로 진입했다. 마치 박완서가 화가 박수근을 만난 경험을 '논픽션'으로 쓰다가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소설'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설 『나목』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했듯이,[40] 전태일은 자신이 노동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사실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박완서의 소설을 자전적인 것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전태일의 소설 초안도 수기와 구분되지 않는 자전적 기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기 형식을 포기한 그는, 소설이라는 허구를 통해 자신의 글들이 개인적 과거를 기록하고 재현한 사적 기록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 경험과 내밀한 고통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학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다.

전태일의 소설 쓰기는 씨앗이 되었다. 그에게 영향을 받아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등장한 노동자 글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던 존재들을 부상시키고 그들에게 언어를 부여하는 글쓰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것이다. 전태일의 글쓰기는 몇 년이 지나서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언하는 글쓰기의 모범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나 지식인들의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또는 노동자들의 말이라고 인식되는 글쓰기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말할 수 없었던 노동자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글쓰기가 싹

39) 이 '수기'들은 전태일의 글을 모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에서 가장 앞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시간순서 상 그가 소설 초안들을 작성하기 직전에 쓴 것이다.

40) 박완서 구술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국립예술자료원 예술사 구술총서 5), 수류산방, 2012, 179쪽. 이 인터뷰에서 박완서는 『나목』을 쓸 때 "사실의 뼈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논픽션에서 픽션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구술했다.

www.kci.go.kr

트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식민지 시기의 문학적 전통이 단절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지식인들이 독점하던 기존의 문학 개념이 한계를 드러냈다. 지식인들의 언어와 그들이 경험한 세계로 이루어진 문학 개념은 한동안 전태일로 대변되는 세계를 외면하면서 문학의 가치를 증식해왔지만, 전태일의 분신 다음 해인 1971년 황석영의 『객지』가 등장하면서 민중문학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학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문학이 재현할 수 있는 감각의 범위와 대상을 재분할하여 그동안 재현되지 못했던 것들을 기존의 문학 개념으로 끌어들인, 그리하여 문학의 경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전태일이 기존의 문학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문학처럼 쓰고 싶어했으며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학에서 탈피한 글쓰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부르주아적 수단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문학적 글쓰기의 경계를 재설정한 전태일의 글쓰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전태일의 글쓰기가 지닌 전복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전태일이 남긴 수기와 일기, 소설들이 산업화와 그것이 낳는 사회적인 흐름을 거부하면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흔들어놓았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실천이자 저항의 기록들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전태일의 글을 배우지 못한 자의 미숙한 글쓰기로 치부하거나 개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전적 기록으로 취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의 글쓰기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그의 사후 몇 년이 지나서 노동자 글쓰기가 탄

www.kci.go.kr

생하도록 추동시킨 문학적 글쓰기의 전복적 확장이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태일은 배움에 대한 갈망 속에서 영화, 대중가요, 시,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원천들을 습득한 흔적들을 적은 분량의 글 속에 파편적으로 남겨놓았다. 『마음의 행로』와 『탈주특급』처럼 일주일 사이에 본 영화들에 대한 감상을 남겨놓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문화적 원천들로부터 빌려온 구절들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변형하면서 시도한 '차용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최희준, 이미자, 안다성, 문주란, 최무룡 등의 노래가사를 조합해서 쓰는 글쓰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소월, 조지훈, 이은상 등 한국 현대시를 베껴 쓸 때는 훨씬 더 과감한 '차용과 변용의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장만영의 『이정표』에서 여러 시편들을 차용하고 변형시킨 부분들은, 그가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시들이 실려 있는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여러 편의 시들을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탐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혼자서(울)대 법대 뒤 낙산동에서 밤이면 시집을 찾아놓고 왜(외)롭고 고독으로 가득찬 마음을 마음껏 왜(외)롭게 만들어서 어떤 한구석에 왜(외)로움을 즐기는 취미"[41]를 가졌던 전태일이 독학으로 쌓은 문학적 소양이 글쓰기의 거름이 된 것이다.

전태일이 해외소설들을 참조하거나 본격적인 문학개론서를 읽고 소설을 구상했음을 보여주는 소설 초안들은, 자전적 기록이 아닌 '허구적 소설 쓰기'의 보편성에 눈을 떴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그는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수기' 쓰기에서 벗어나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쓸 수 있는 '소설' 쓰기로 진입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내밀한 체험들이 보편적 설득력과 감동의 힘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

41) 전태일, 앞의 책, 86쪽.

www.kci.go.kr

서 소설초안들이 새로 쓰여질 때마다 그는 아예 새로운 이야기의 창조에서 자신의 개인사적 체험들을 보편적 허구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소설 초안들이 구상되고 점차 복잡해지는 진행 과정은 그가 자전적 수기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허구적 이야기들의 형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노동자들의 방식으로 쓰지 않고 기존의 엘리트 지식인들의 문학적 형식에 의존한 글쓰기를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문학 세계를 확장시키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글쓰기를 시도하는 역설적 결과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전태일의 사후적 영향은 그의 충격적인 죽음의 방식과 결합된 글쓰기에서 시작되었다. 전태일의 문장은 때로 오자와 비문으로 얼룩져 있다 해도 그가 보여준 글쓰기의 과정과 다양한 장르의 글들은 당대의 어떤 글들보다도 반성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보를 개척자의 흔적이었다. 하루 종일 노동으로 지쳐 있었음에도 희망으로 써 내려간 일기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한 수기들,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구상한 미완의 소설들은, 당시까지 존재하던 문학적 규범과 철학적 체계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를 기존의 글쓰기 세계에 기입하고 재분할시켰다. 전태일의 글은 글쓰기의 과정 자체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새로운 감성과 사유를 제시한다. 전태일이 22세에 모든 글쓰기를 끝내지 않고 살아 남았다면, 이후 어떤 글과 삶이 탄생하도록 추동했을지 궁금해진다.

www.kci.go.kr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백　철,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1963.

장만영, 『이정표』, 신흥출판사, 1958.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88.

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1983.

2. 논문과 단행본

김경수, 「1970년대 노동수기와 근로기준법」, 『우리말글』 77호, 2018, 215-244쪽.

김성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진정성 담론의 역설」, 『기억과 전망』 37호, 2017, 101-139쪽.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호, 2012, 353-386쪽.

김　원,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학사연구』 59, 2015, 105-143쪽.

박숙자,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 『전태일 평전』」, 『국제어문』 67집, 2015, 41-69쪽.

신형기, 「전태일의 죽음과 대화적 정체성 형성의 동학」, 『현대문학의 연구』 1호, 2014, 99-131쪽.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19권 1호, 2018, 7-52쪽.

오제연, 「'기독 청년' 전태일과 전태일의 역사화」, 『역사비평』 2020년 겨울호, 159-196쪽.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집, 2017, 115-147쪽.

_____, 「전태일 이후의 한국소설과 기억의 정치」, 『우리문학연구』 62호, 2019, 455-481쪽.

이정안, 「전태일의 글쓰기 변화과정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72호, 2018, 259-287쪽.

이종영, 「전태일 평전에 대하여」, 『진보평론』 55호, 2013, 282-297쪽.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4집, 2014, 63-80쪽.

정고은, 「한국 노동문학과 '전태일'」, 『한국사연구』 191집, 2020, 27-53쪽.

정의진, 「문학개념의 역사적 재구성과 노동자 글쓰기: 1830년대 프랑스 노동자들의 텍스트와 전태일의 유고에 대한 비교연구 시론」, 『한국학연구』 45집, 2017, 519-548쪽.

정종현, 「노동자의 책읽기: 1970-80년대 노동(자)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

www.kci.go.kr

사」, 『대동문화연구』, 2014, 73-121쪽.
황병주, 「전태일,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내일을 여는 역사』 70호, 2018, 52-80쪽.
황석영 외, 『민중을 기록하라』, 실천문학사, 2015.
자끄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1.
미셸 푸코, 『상당한 위험』, 허경 옮김, 그린비, 2021.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김원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7.
E.P.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하, 나종일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0.
Jonathan Rose, *The Intellectual Life of the British Working Classe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www.kci.go.kr

▌국문요약

## 글 쓰는 청년 전태일

송은영

전태일의 사후적 영향은 그의 충격적인 죽음의 방식과 결합된 글쓰기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이 전태일의 글을 배우지 못한 자의 미숙한 글쓰기로 치부하거나 개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전적 기록으로 취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의 글쓰기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그의 사후 새로운 노동자 글쓰기가 탄생하도록 추동시킨 문학적 글쓰기의 전복적 확장이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전태일은 배움에 대한 갈망 속에서 영화, 대중가요, 시,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원천들을 습득한 흔적들을 파편적으로나마 남겨놓았다. 그는 여러 문화적 원천들로부터 빌려온 구절들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변형하면서 시도한 '차용의 글쓰기' 방식부터 시도했다. 특히 장만영의 『이정표』에서 차용하고 변형시킨 부분들은, 그가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시들이 실려 있는 책을 꼼꼼하게 읽고 여러 편의 시들을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탐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태일의 소설초안들은 자전적 기록이 아닌 '허구적 소설 쓰기'의 보편성에 눈을 떴음을 보여준다. 그는 노동자들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기존의 문학적 글쓰기 형식을 통해 말하기를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문학 범주를 거부하는 역설적 흐름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전태일이 어떠한 문화적 원천들을 습득하고 소화했는지 밝혔다는 점, 그리고 그가 노동자들의 방식으로 쓰지 않고 기존의 엘리

www.kci.go.kr

트 지식인들의 문학적 형식에 의존한 글쓰기를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낡은 문학 세계를 확장시키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글쓰기를 시도하는 역설적 결과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전태일, 랑시에르, 노동자 글쓰기, 일기, 수기, 허구적 소설, 차용과 변용의 글쓰기, 보편성의 글쓰기

www.kci.go.kr

Abstract

## Writing of Young Jeon Tae-il

Song, Eun-young

Jeon Taeil's post-mortem influence began with writing combined with his self-immolating way of death. This article breaks away from the old approaches of treating his writing as inexperienced writing by an uneducated person or regarding it as an autobiographical record that help to understand his personal history. I intend to understand how his writing proceeded itself, and explains how the new working-class writing stemmed from him after his death, and tried to figure out where and how the subversive expansion of new literary writing that motivated its birth.

Jeon Tae-il left the traces of acquiring various cultural sources, including films, popular songs, poetry, and novels in his longing for learning. He tried the 'writing of borrowing' method by quoting and transforming passages from various cultural sources. In particular, the parts borrowed and transformed from Jang Man-young's book "Milestones" show that he was indulged enough to memorize and write several poems after meticulously reading books containing various poems of Korea and abroad. His novel drafts show that he

www.kci.go.kr

opened his eyes to the universality of ‘writing fictional novels’ rather than autobiographical records. The fact that he did not speak in the workers' way but rather speak through existing literary writing form, resulted in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paradoxical flow that rejected the traditional and elitist category of writing.

This article reveals what cultural sources Jeon Tae-il acquired, and that he pursued writing that relied on the literary form of the elite intellectuals rather than writing in the workers’way, consequently expanded the old literary world and helped the workers write themselves.

Key-words : Jeon Tae-il, Jacques Rancière, Working-class Writing, Diary, Memoir, Fictional Novel, Writing of Borrowing and Transformation, Writing of Universality

이 논문은 2022년 1월 16일에 접수되었으며,
2022년 1월 25일에 심사를 거쳐 2022년 2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